

##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 규 미                      구 자 경                      김 은 정                      이 시 형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청소년종합상담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최근 외톨이 상황이나 따돌림 피해로 상담실을 찾는 청소년 내담자가 늘어나면서 이는 청소년상담의 주요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던 문제는 첫째, 청소년 내담자를 왕따외톨이, 외톨이, 비외톨이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세 집단간에 심리사회적 특성 즉, 사회적 기술, 공격성, 사회적 불안, 심리적 증상 및 스트레스와 부모양육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와 둘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과 왕따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연구를 위해 13개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을 이용한 중고생 166명을 대상으로 외톨이·왕따성향, 사회적 기술, 사회적 불안, 공격성, 심리적 증상,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왕따외톨이 집단과 외톨이 집단이 비외톨이 집단에 비하여 사회적 기술 가운데서 공감성과 주장성 정도가 낮으며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고 심리적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세집단간에 부모양육태도 중 돌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주장정도과 사회적 불안 수준이 외톨이 성향에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수준, 공감성, 자기조절 변인이 왕따 성향에 의미있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기에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한 사회적 관계축으로 삼게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나 친척,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타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친구들

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해결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Smoller와 Younis(1982)는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아이들이 협동성과 상호존중, 대인관계 감각(sensitivity)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러한 능력은 이후 다른 사회적 관계들에 확장, 적용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Sullivan(1953)은 아동기에 동년배의 동성 친구들과 맺는 친밀한 관계가 청소년기 이후 대인관계 적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초기 어린시절 경험한 관계의 결핍까지도 보상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친구관계는 인지적 발달을 자극하고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줄 뿐만아니라(Erwin, 1998; Ramsey, 1991) 스트레스 환경에서 정서적 지지를 해줌으로써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Conrad & Hammen, 1993; Pryor-Brown & Cowen, 1989). 따라서 청소년기에 당면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건전한 친구관계의 형성이며,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건강한 발달과 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이들이 자기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며(Kurdek & Krile, 1982), 사회적 성공(social success)에 대한 기대가 낮고(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더 우울한 경향이 있다(Vosk, Forehand, Parker, & Rickard, 1982)고 한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 친구가 없는 아이들은 사회불안이 높고, 사회적 회피 성향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단지 친한 친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이후 성인기에 부적응적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왔다(Ellenbogen & Chamberland, 1997; Woodward & Ferguson, 2000). Newcomb, Bukowski, & Pattee(1993)은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공격성향을 보이며, 친구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술이나 또래들의 놀이문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친구들과 지지적, 협력적이고 공감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긍정적 사회적 행동 등의 사회성 전반에서 또래들에 비해 발달 정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친구관계 문제가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에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의 친구관계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응용이나 인성발달보다 학업에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더 나아가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친구가 없어도 집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부모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과외공부반, 미술반, 피아노반 등)과 다양한 통신매체의 발달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친구보다도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에 몰두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핵가족 속에서는 과거처럼 친족이나 이웃, 공동체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하고, 골목동무들과 함께 공동체적 생활을 익혔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회적 환경은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지향적인 성향을 키워 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친구관계형성을 조력하고 친구관계로 파생되는 다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담자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어울릴 친구나 또래집단이 없어서 주로 혼자 지내는 외톨이 청소년과 친구들로부터 명백하게 따돌림을 당하여 친구가 없는 왕따외톨이 청소년은 상담자의 조력이 더욱 필요하다. 외톨이 청소년 혹은 왕따 외톨이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상담자는 이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외톨이가

되고 왕따를 당하며, 외톨이와 왕따의 심리적 취약점과 심리적 상황은 어떠한지, 이들이 외톨이와 왕따에서 벗어나 원만한 친구관계를 갖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면서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 공격성, 사회적 불안, 심리적 증상, 스트레스와 같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왕따 성향과 외톨이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려고 한 구체적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왕따외톨이, 외톨이, 비외톨이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세 집단간에 심리사회적 특성 즉, 사회적 기술, 공격성, 사회적 불안, 심리적 증상 및 스트레스와 부모양육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이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외톨이 성향과 왕따 성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 방 법

### 1. 대상

시도의 13개 전문 청소년상담기관을 2000년도 10월 중에 이용한 중고생 내담자 중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친구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16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 36명, 부산 12명, 인천 20명, 대구 16명, 대전 7명, 울산 17명, 경기도 5명, 충남 12명, 경북 14명, 경남

16명, 강원도 8명, 제주도 3명이었다.

### 2. 도 구

**외톨이 질문지:** 중고생 389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연구를 통하여 제작된 척도로서 친구관계에서 친구가 없는 아이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며 친구들로부터의 소외와 외로움을 측정하는 문항 7개,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문항 6개, 친구들과의 상호교류를 측정하는 문항 3개로 구성되어있다. 제시된 문항의 내용이 피검자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4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예비연구에 참가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31로 비교적 높았다.

**왕따 질문지:** 신성용,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2000)이 개발한 질문지에서, 거명법에 비추어 따돌림 받는 아이들을 잘 변별하지 못하는 두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문항을 최종 질문지로 사용하였다. 예비연구에서 나타난 최종 11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15였다. 11문항을 전체점수로 합산하여 왕따 점수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기술 질문지:** Gresham과 Elliot(1990)에 의해 개발된 SSRS(Social Skills Rating Scale)은 교사, 학생, 부모를 위한 세 가지 유형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3세~18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원검사는 협동성, 주장성, 책임감, 공감, 자기조절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되어있고 학생용 검사는 협동성, 주장성, 공감성, 자기조절의 4가지 요인으로만 구성되어있다. 각 하위요인은 빈도와 중요성의 두

영역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주로 빈도만이 사용되고 있다. SSRS 학생용 검사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3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8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영주(1999)가 변안·수정·요인분석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영주(1999) 연구에서의 하위척도는 협동성(13문항), 공감(13문항), 주장성(7문항), 자기조절(6문항)의 4가지였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협동성이 .82, 공감이 .80, 주장성이 .72, 자기조절이 .5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외톨이 집단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공감성과 주장성, 자기조절의 세 요인만을 포함시켰다. 요인별 측정내용을 살펴보면, 공감요인은 주변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거나 타인의 갈등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는 등의 또래간 대인능력을 측정한다. '주장성'요인은 자신이 먼저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자기 조절'요인은 친구들의 놀림이나 이성과의 갈등, 어른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항상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6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기술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요인별 점수와 전체점수를 산출하였다.

**사회불안 척도(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IAS):** 이 검사는 Leary(1983)가 사회적인 교류 상황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서, 총 15개의 문항에 대해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극히 그렇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남재(1995)가 우리나라 말로 변안

한 한국판 IAS를 사용하였으며, 이 검사의 내적합치도(Chronbach's  $\alpha$ )는 .88, 3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0( $p < .001$ )이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IAS의 내적합치도는 .85였다.

**공격성 척도:** 김준호(1997)가 사용한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을 끌려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은 혼을 내주고 싶다' 등 모두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총합하여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CL-90-R(Symptom Checklist-90-Revision) 중 일부:** SCL-90-R 척도는 심리치료 및 항정신약물 사용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뿐만 아니라 심리진단검사로써 쓰일 수 있도록 Derogatis와 그의 동료들(1973)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이다. 원래 9개 증상차원, 90개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다. '아주 심하다'에서 '전혀 없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다. 9개 증상 차원은 다음과 같다: 신체화(12문항), 강박증(10문항), 대인민감성(9문항), 우울(13문항), 불안(10문항), 적대감(6문항), 공포불안(7문항), 편집증(6문항), 정신증(10문항). 각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다음과 같다: 신체화( .86), 강박증( .86), 대인민감성( .86), 우울( .90), 불안( .85), 적대감( .84), 공포불안( .82), 편집증( .80), 정신증( .77).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어려움과 관련된 증상을 측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9개 증상 차원 중 우울(13문항), 불안(10문항), 적대감(6문항), 편집증(6문항)의 총 3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하위척도의 한국판 내적합치도는 불안이 .86, 우울이 .89, 적대감이 .68,

그리고 편집증이 .69였다.

**부모양육태도척도(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Parker, Tupling 및 Brown(1979)이 개발한 질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가 부모와의 관계를 회상하며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총 25문항이 2개의 하위 요인(돌봄-무관심, 과보호-자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무관심” 요인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나 거부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과보호-자율성” 차원은 총 13개의 문항으로 부모의 과잉통제나 과보호적 성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BI 척도 원문항과 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돌봄-무관심” 요인을 ‘돌봄’으로 지칭하고, “과보호-자율성” 요인을 ‘통제’로 지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요인별 점수와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다.

**스트레스 질문지:** 이시형 등(1997)이 평소 생활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원래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1문항, 교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11문항, 친구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8문항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 3. 절차

설문조사는 2000년 10월4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지역의 상담기관에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지의 목적을 설명하며 권유하였고 응답된 질문지는 본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회송되었다.

### 4. 분석방법

작성된 자료를 일반적인 친구관계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외톨이점수와 왕따점수에 근거하여 청소년 내담자를 왕따외톨이 집단, 외톨이 집단, 비외톨이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변량분석(ANOVA)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내담자의 외톨이 점수와 왕따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왕따 외톨이, 외톨이, 비외톨이 집단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왕따 외톨이, 외톨이, 비외톨이 집단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예비조사에서 실시한 외톨이 질문지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친구관계상황을 비외톨이 집단, 외톨이 집단, 왕따외톨이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외톨이 질문지 점수분포의 하위 15% 미만에 해당되는 집단을 비외톨이 집단으로 하고, 외톨이 질문지 점수의 상위 15%에 해당하는 집단을 다시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왕따 질문지 점수 상위 15%에 해당하는 집단을 왕따외톨이 집단으로, 그 나머지를 외톨이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 세 집단에 대하여 사회적 기술 질문지 점수, 사회불안 질문지 점수, 공격성 질

표 1. 왕따외톨이, 외톨이, 비외톨이 집단의 각 척도점수 평균과 변량분석, Duncan 검증 결과

변인	왕따외톨이 (N=11)	외톨이 (N=10)	비외톨이 (N=50)	F	Duncan
외톨이점수	38.55 (5.37)	36.30 (4.45)	17.31 (1.46)	322.16***	1,2>3
왕따점수	21.91 (4.57)	13.20 (1.23)	12.55 (2.42)	53.08***	1>2,3
사회적기술 합	64.00 (17.12)	69.62 (10.04)	91.78 (10.52)	31.78***	3>2,1
공감성	35.27 (9.57)	40.40 (8.17)	49.15 (6.14)	20.35***	3>2,1
주장성	13.91 (5.36)	12.50 (2.51)	24.58 (5.20)	35.01***	3>1,2
자기조절	14.82 (4.56)	16.56 (4.13)	17.57 (3.67)	2.34	
사회 불안	50.18 (7.85)	46.00 (9.26)	34.87 (8.47)	17.97***	1,2>3
공격성	10.55 (3.98)	9.11 (2.80)	11.92 (4.06)	2.22	
SCL-합	99.30 (31.26)	86.86 (4.95)	61.78 (19.10)	16.16***	1,2>3
SCL불안	28.60 (9.12)	23.00 (4.07)	16.02 (5.73)	19.51***	1,2,3
SCL우울	37.00 (2.78)	35.00 (3.07)	23.47 (8.44)	13.33***	1,2>3
SCL편집	17.91 (5.17)	17.11 (3.33)	10.54 (3.18)	27.78***	1,2>3
SCL적대	14.81 (5.76)	14.70 (3.83)	11.73 (4.60)	3.06*	1,2,3
부모양육태도합	69.50 (15.44)	78.00 (8.60)	79.04 (10.86)	2.90	
돌봄	34.36 (8.95)	33.70 (6.41)	38.61 (6.41)	3.29*	3,1,2
통제 <sup>1)</sup>	36.30 (7.26)	42.00 (4.75)	40.45 (5.73)	2.59	
스트레스 합	26.09 (7.29)	22.89 (4.04)	22.45 (5.77)	1.74	

\* p < .05      \*\*\* p < .001

<sup>1)</sup> 부모양육태도-통제는 역으로 점수화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통제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문지 점수, SCL-90 질문지 점수, 부모양육태도 질문지 점수, 스트레스 질문지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질문지에 나타난 세 집단의 평균점수와 변량분석결과, 그리고 집단간 차이에 대한 Duncan검증결과는 표 1과 같다. Duncan 검증결과에서 부등호 표시는 각 조건에서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더 크거나 작음을 나타낸다.

표 1을 보면, 변량분석결과 사회적 기술의 총점수( $F(2, 62)=31.78, p<.001$ ), 하위변인인 공감성점수( $F(2, 65)=20.65, p<.001$ )와 주장성점수( $F(2, 66)=35.01, p<.001$ )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Duncan검증결과, 왕따외톨이 집단과 외톨이 집단이 비외톨이 집단에 비하여 공감성과 주장성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인 내담자들이 타인의 갈등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는 등의 공감능력이 또래들에 비하여 낮고, 친구관계에서 자신이 먼저 친근감을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측면도 부족함을 의미한다. 사회불안 점수에서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F(2, 62)=17.97, p<.001$ ), 왕따외톨이 집단과 외톨이 집단이 비외톨이 집단보다 사회적 불안점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인 내담자들이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불편감이나 불안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는 SCL-90 총점수( $F(2, 60)=16.16, p<.001$ )와 각 하위점수 즉, 불안( $F(2, 65)=19.51, p<.001$ ), 우울( $F(2, 64)=13.33, p<.001$ ), 편집( $F(2, 67)=27.78, p<.001$ ), 적대점수( $F(2, 67)=3.06, p<.05$ )에서도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Duncan검증결

과, SCL-90 총점수와 우울점수, 편집점수에서 왕따외톨이 집단과 외톨이 집단이 비외톨이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인 내담자들이 일반 또래 집단보다 우울한 정도와 타인에 대한 불신정도가 더 심함을 의미한다. 부모양육태도에서는 돌봄점수가 세집단 동시 비교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F(2, 67)=3.29, p<.05$ ) Duncan검증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앞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왕따외톨이 집단이나 외톨이 집단이 일반또래집단에 비하여 공감성이나 주장성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우울과 편집증의 심리적 증상을 더 호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심리사회적 변인이 외톨이성향과 왕따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외톨이 성향, 왕따 성향에 대한 관련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상대적 설명력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 개인 변인, 부모관련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외톨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청소년 작성 질문에 포함된 변인들만을 독립 변인으로 포함시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독립 변인들은 총 여섯 개의 독립 변인군으로 나누어졌다. 첫 단계로 성별, 학교, 부학력, 모학력, 생활수준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두 번째 단계로는 주장성, 공감성, 자기조절의 사회적 기술 변인이,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사회불안이 투입되었다. 네 번째 단계로 투입된 변인은 공격성이었고, 다섯 번째 단계에 포함된 변인군은 부모양육태도 하위척

표 2. 외톨이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모형

예언변인	Beta	t	R <sup>2</sup>	Δ R <sup>2</sup>	ΔF
인구통계학적변인			.052	.052	1.237 <sup>***</sup>
성별	.604	.822			
학교	-.067	-.862			
부학력	.204	2.296 <sup>*</sup>			
모학력	.029	-.313			
생활수준	-.100	-1.419			
사회적기술			.455	.403	27.081 <sup>***</sup>
공감성	-.052	.589			
주장성	-.427	-4.024 <sup>***</sup>			
자기조절	.031	.682			
사회불안			.517	.062	14.163 <sup>***</sup>
공격성	-.138	-1.751	.525	.008	1.705
부모양육태도			.542	.017	1.978
돌봄	-.182	-1.940			
통제	.133	.134			
스트레스			.543	.001	0.166

\*  $p < .05$ , \*\*  $p < .01$ , \*\*\*  $p < .001$

도인 돌봄과 통제 변인군이었다. 마지막 단계로 스트레스 변인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방식 아래 먼저 외톨이 질문지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섯단계를 통해 투입된 변인들이 외톨이 점수를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변량의 54%였다. 첫단계로 투입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군의 설명변량은 5%( $F(5, 113)=1.237$ )로서 유의하였으며, 변인군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은 부학력이었다( $\beta = .204, p < .05$ ). 이는 아

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두번째, 사회적 기술군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약 40%( $F(3, 110)= 27.08$ )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유의미한 수준이었으며, 하위척도에서는 주장성( $\beta = -.427, p < .001$ )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친구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측면이 부족할 경우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투입변인인 사회불안변인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약 6%( $F(1, 109)=14.16$ )로서 유의미한 수준이었고,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beta = .323,$

표 3. 왕따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모형

예언변인	Beta	t	R <sup>2</sup>	Δ R <sup>2</sup>	Δ F
인구통계학적변인			.053	.053	1.273
성별	-.100	-1.037			
학교	-.116	-1.194			
부학력	.076	.492			
모학력	.060	.520			
생활수준	.032	.366			
사회적기술			.192	.139	6.288***
공감성	-.144	-1.207			
주장성	-.160	-1.217			
자기조절	.209	2.168*			
사회불안	.320	2.968**	.283	.091	13.764***
공격성	.018	.180	.285	.002	.334
부모양육태도			.294	.009	.718
돌봄	-.111	-.952			
통제	-.002	-.017			
스트레스	.042	.449	.296	.002	.202

\* $p < .05$ , \*\* $p < .01$ , \*\*\* $p < .001$

$p < .001$ ). 이는 사회불안이 높을 경우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네 번째 투입변인인 공격성변인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1%( $F(1, 108)=1.70$ )로서 설명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외톨이인 아이들이 공격적인 성향이 더 많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다섯 번째 투입변인인 부모양육태도 변인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2%( $F(2, 106)=1.98$ )로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하위변인인 돌봄과 통제의 설명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것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톨이 성

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스트레스 변인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1%( $F(1, 105)=0.17$ )로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표 3의 분석결과를 보면, 여섯 단계를 통해 투입된 변인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변량의 30%였다. 첫 단계로 투입된 인구통계학적 변인군의 설명변량은 5%( $F(5, 113)=.053$ )로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변인군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은 없었다. 두 번째로 투입된 사회

적 기술준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약 14%( $F(3, 110) = 6.29$ )로서 유의하였으며, 하위척도에서는 자기조절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beta = .209, p < .05$ ). 이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조절이 심할수록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투입변인인 사회불안변인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전체 변량의 9%( $F(1, 109) = 13.76$ )로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beta = .320, p < .001$ ). 이는 대인관계에서 불편감이 크고 타인을 많이 의식할수록 친구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네 번째 투입변인인 공격성변인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0.2%( $F(1, 108) = 0.33$ )로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투입변인인 부모양육태도 변인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전체 변량의 1%( $F(2, 106) = 0.72$ )로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하위변인인 돌봄과 통제 설명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스트레스변인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전체변량의 0.2%( $F(1, 105)$

$= 0.20$ )로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설명력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적 기술, 사회 불안, 공격성 등의 개인적 변인과 부모양육태도, 스트레스를 예언 변인으로 하여 외톨이 질문지 점수에 대해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와 표 5에서 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외톨이 점수에 대해서 자기주장 변인의 설명변량이 38%( $F(1, 126) = 77.85$ )로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사회불안이 5%의 변량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외톨이 점수에 대해서 자기주장변인의 설명변량이 큰 것은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측면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해준다.

표 5를 보면, 왕따 점수에 대해서 사회불안 변인이 전체변량의 9%( $F(1, 126) = 12.15$ )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감성 변인이 5%, 자기조절변인이 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사회불안이 높고, 공감성이 부족

표 4. 외톨이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단계적(stepwise) 회귀모형

예언변인	$R^2$	$\Delta R^2$	$F$	$B$	$SE B$	$Beta$	$t$
자기주장	.382	.382	77.85***	-.546	.090	-.485	-6.10***
사회불안	.428	.046	46.77***	.186	.059	.252	3.18**

\*\*  $p < .01$ , \*\*\*  $p < .001$

표 5. 왕따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단계적(stepwise) 회귀모형

예언변인	$R^2$	$\Delta R^2$	$F$	$B$	$SE B$	$Beta$	$t$
사회불안	.088	.088	12.15***	.123	.036	.290	3.40***
공감성	.136	.048	9.80***	-.143	.043	-.296	3.31***
자기조절	.171	.035	9.80***	.231	.101	.207	2.29*

\*  $p < .05$ , \*\*\*  $p < .001$

하고 자기조절이 심할수록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해준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왕따와 외톨이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왕따외톨이 집단, 외톨이 집단, 비외톨이 집단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변량분석하고 내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왕따점수와 외톨이 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따외톨이 집단과 외톨이 집단이 비외톨이 집단에 비하여 공감성과 주장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인 내담자들이 타인의 갈등상황을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고 먼저 인사하는 등의 공감능력이 또래들에 비하여 낮고, 친구관계에서 자신이 먼저 친근감을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측면도 부족함을 나타내준다. 이는 기존의 문헌들(구본용, 1999; 김창대, 1999;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에서 따돌림 피해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제시한 것을 부분적으로 확인하여 준다. 김창대(1999)는 따돌림에 대한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따돌림 당하는 학생들은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낮은 주장성, 낮은 자존감, 지나친 타인지각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잘난 체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상 건전한 개별화를 성취하지 못해 타인과 자신을 잘 분리하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관심이 많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아

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왕따외톨이 집단, 외톨이 집단, 비외톨이 집단간에 공격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친구들과부터 거부당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고 밝혔던 기존의 연구들(Catrell & Prinz, 1985; Galen & Underwood, 1997; Newcomb, Bukowski, Pattee, 1993)과 다른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왕따외톨이로 분류된 사례의 수가 적은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양과 달리 청소년들이 왕따외톨이가 되는 이유가 공격성 보다는 사회적 위축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톨이인 내담자들이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불편감이나 불안감의 수준이 높으며, SCL-90 총점수와 하위점수인 우울점수, 편집점수에서 왕따외톨이 집단과 외톨이 집단이 비외톨이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따돌림 피해자들이 과도한 불안으로 인하여 대인관계에서의 대화 집중이 어렵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나약한 사람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구본용, 1999)이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친구가 없는 아이들이 더 우울하고(Vosk, Forehand, Parker, & Rickard, 1982), 사회불안이 높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왕따외톨이, 외톨이, 비외톨이 집단간에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중 돌봄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돌보는 정도에 따라 자녀의 친구관계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중

통제 수준에 있어서는 세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외톨이 점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여섯단계(즉,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회적 기술변인, 사회불안 변인, 부모양육태도 요인, 스트레스 변인)를 통해 투입된 변인들이 외톨이 점수를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변량의 54%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입된 사회적 기술군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약 4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하위척도에서는 주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투입변인인 사회불안변인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전체 변량의 6%에 해당하였고, 사회불안변인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외톨이 점수에 대한 단계적 회귀 분석결과에서도 자기주장 변인이 설명하는 변량이 38%로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사회불안이 5%의 변량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청소년 내담자의 주장성이 적을 경우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친구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내게 되는 것이다. 둘째, 대인관계에서 불안과 긴장,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이 외톨이로 지낼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낸다. 이로써 상담자는 외톨이 내담자를 상담할 때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편감과 긴장을 공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내담자의 불편했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불편감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내담자의 비합리적, 비현실적 신념을 찾아내어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신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외톨이 내담자가 친구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있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주장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왕따 점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여섯단계를 통해 투입된 변인들이 왕따 점수를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 변량의 30%였다. 두 번째로 투입된 사회적 기술군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약 14%였으며 하위척도에서는 자기조절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투입변인인 사회불안변인의 추가적 설명변량은 전체변량의 9%에 해당하였고, 설명력이 유의하였다. 즉, 자기조절을 심하게 하는 내담자일수록 왕따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왕따 점수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불안 변인이 전체변량의 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공감성 변인이 5%, 자기조절변인이 4%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자기 조절이 심한 내담자일수록 왕따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왕따 외톨이 내담자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 같은 경직된 방식의 자기조절을 함으로써 갈등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감성 수준이 낮은 내담자일수록 왕따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즉, 타인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청소년 내담자들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셋째, 대인관계에서 불편감이 크고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내담자일수록 친구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내담자의 사회불안 요인은 외톨이 성향과 왕따 성향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상담자는 왕따 외톨이인 내담자가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며,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불편감, 긴장, 분노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비합리적 인지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자는 따돌림이나 대인갈등상황에서 내담자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함양하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가 외톨이 혹은 왕따외톨이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사회적 기술을 함양하며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발된 집단상담프로그램(예컨대, 손진희, 홍지영, 양재혁, 1998)을 내담자들에게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대상이 외톨이인가 혹은 왕따 외톨이인가에 따라 심화발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에서 집단 상담리더가 차이를 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외톨이 집단은 주장성에, 그리고 왕따외톨이 집단은 공감능력의 함양과 지나친 자기조절의 감소 등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집단따돌림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데 비하여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외톨이 청소년은 주변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자신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되기 쉬우므로 학부모와 교사는 외톨이로 지내는 청소년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분용(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제 21회 청소년문제토론회 자료집, 7-16.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구분용(1998). 청소년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 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남재. (1995). 대인불안의 측정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73-81.
- 김창대(1999). 따돌림 해결을 위한 가정모델. 따돌림 해결을 위한 현장모델 개발. 제 2회 청소년상담 심포지엄 자료집, 21-33.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손진희, 홍지영, 양재혁(1998).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개원1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53-76.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신성용,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2000).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 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 124-143.
-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현상: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개원1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15-40.
- 이시형(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개원1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2-14.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김형주, 이경아, 최영순. (1997). 친구관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한영주. (1999). 중·고등학교 집단따돌림(왕따)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유경(1999). 부모간 양육태도, 출생순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친구관계와 인기도 차이.

구분용(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제 21회 청소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sher, S. R.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A.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3-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her, S. R., & Parker, J. G. (1989). The significance of peer relationships problems in childhood. In B. H. Schneider, G. Attili, J. Nabel, & R. P. Weissberg(Eds.), *Social competence in developmental perspective*(pp. 5-23). Amsterdam: Kluwer Academic Publishing.
- Asher, S. R., Parkhurst, J. T., Hymel, S., & Williams, G. A. (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A.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53-27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trell, V. L., & Prinz, R. J. (1985). Multiple perspectives of rejected, neglected, and accepted children: Relation between sociometric statu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884-889.
- Coie, J. D. (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In A.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365-40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 Dodge, K. A. (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1.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 Koepl, G. K. K. (1990). Adapting intervention to the problems of aggressive and disruptive children. In A.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309-33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 Kupersmidt, J. B.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Conrad, M., & Hammen, C. (1993). Protective and resource factors in high-risk and low-risk children: A comparison of children with unpopular, bipolar medically ill, and normal mothers.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5*, 593-607.
- Ellenbogen, S., & Chamberland, C. (1997). The peer relations of dropouts: a comparative study of at-risk youths. *Journal of Adolescence, 20*, 355-367.
- Erwin, P. (1998).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Routledge.
- Galen, B. R., Underwood, M. K. (1997).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 Gresham, F. M. (1988). Social skills: Conceptual and applied aspects of assessment, training, and social validation. *Handbook of Behavior Therapy in Education*.(pp. 523-546)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 1485-1591.
- Newcomb, A. F., & Bagwell, C. L. (1996).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pp. 289-32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Parker, Tupling, & Brown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 Pryor-Brown, L., & Cowen, E. L. (1989). Stressful life events, support,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and child psychology*, 18, 214-210.
- Ramsey, P. G. (1991). *Making friends in school: Promotin peer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Rubin, K. H., LeMare, L. J.,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A.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217-2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oller, J., & Youniss, J. (1982). Social development through friendship. In K. H. Rubin & H. S. Ross (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 New York: Springer-Verlag.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Vosk, B., Forehand, R., Parker, J. B., & Rickard, K. (1982). A multimethod comparison of popular and unpopula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71-575.
- Woodward, L. J., & Ferguson, D. M. (2000). Childhood relationship problems and later risks of educational under-achieve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191-201.

##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Oiettolie Adolescents

Kyu-Mee Lee  
Iwha Womans University

Ja-Gyoung Koo  
Seoul Metropolitan  
Counseling Center for Youth

Eun-Jung Kim Si-Hyung Lee  
Samsung Institute of  
Social Psychia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Oiettolie. Oiettolie had two subtypes; Oiettolie and Wangttaoiettolie. Oiettolie means withdrawn adolescents without peers. Wangttaoiettolie means withdrawn adolescents rejected by peer or peer group.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skills, aggressiveness, interaction anxiousness, psychological symptom, stress and parental bonding style on Oiettolie and Wangttaoiettolie trait. The Social Skills Rating Scale, Aggressiveness Scale, Interaction Anxiousness Scale, SCL-90-R, Parental Bonding Instrument, Stress Scale were administered to one hundred sixty six adolescent clients of professional youth counseling centers. These data were analyz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d analysis of variance.

There were three major findings:

1. Wangttaoiettolie group and Oiettolie group showed lower empathy and assertiveness level than nonOiettolie group.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parent's care level among three groups.
2. Wangttaoiettolie group and Oiettolie group experienced more psychological distress to social relations and were more depressive and paranoid than nonOiettolie group.
3. Adolescents' self assertiveness and interaction anxiousness level affected the Oiettolie score while adolescent interaction anxiousness, empathy, self assertiveness variables had effect on the Wangttaoiettolie score.